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40 호

2020년 12월 01일

## - 목 차 -

### ■ 협회 소식

1. 2020 Korea Leaders Summit Virtual Conference 결과 공유 (11/24 - 25)

### ■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슬로워크
2. [SDGs 솔루션] 소각 과정이 없는 폐기물의 에너지화

### ■ UNGC 뉴스

1.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국내 ESG 선도 10대 기업 및 국회의원 선정
2. 500대 기업 남성 직장인 절반 “직장 내 성차별? 없어요”

### ■ UNGC 회원 뉴스

1. 수자원공사, 창립 53주년 ‘기후위기 경영’ 선언
2. 교보생명 ‘2020 KWIN 컨퍼런스’...여성 인재 육성
3. SK 이노베이션, 환경부와 친환경 신생기업 발굴...성장 집중 지원
4. 국민銀, 내년 1월 목표 '적도원칙' 가입 추진

##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 협회 소식

### 1. Korea Leaders Summit Virtual Conference 결과 공유 (11/24 - 25)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KT스퀘어 드림홀에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0(UNGC Korea Leaders Summit 2020)’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습니다.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0’은 UNGC가 추구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가치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적극 동참하는 비즈니스 리더들과 함께 ‘뉴노멀 시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지속가능한 회복 및 재건과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동건 UNGC 한국협회 회장은 첫째 날 개회사에서 “기업 경영 환경에 있어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는 매우 다를 것이다”라며, “금일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0에 모인 기업 지속가능성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해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기업의 회복탄력성 향상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조연설 및 특별연설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이자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을 비롯해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가 참여해 코로나19 팬데믹 속 기업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을 공유했습니다.

반기문 명예회장은 “UNGC의 목적과 사명은 기업시민의식과 지속가능성을 함양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을 결집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UNGC 한국협회가

주최하는 오늘 컨퍼런스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우리 기업들을 결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K-방역, K-pop 뿐 아니라 'K'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높은 기업시민의식도 이제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인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회성 IPCC 의장은 "기업시민의식과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세계 경제 조성하는 UNGC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이런 UNGC의 임무는 팬데믹과 기후변화에 의해 위협받는 오늘날 더 크게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회성 의장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과 인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이것은 정부, 기업, 시민들의 행동에 있어 전혀 없는 규모의 협력관계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넷 제로는 변혁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역량에 달려있다"며, "IPCC는 정책 입안자, 투자자, 생산자, 소비자 및 전 세계 시민들에게 결정과 행동에 대한 증거 기반 평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는 특별연설에서 "현 상황에서 지구 온도는 2100년까지 최소 섭씨 3도 가량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지도자들이 내년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서 임박한 기후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탈탄소화와 경제 성장 사이에 모순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코로나19는 화석 연료 경제가 지속불가능하며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석탄 발전소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먼 스미스 대사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영국 및 유럽 국가들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삼는 만큼, 수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완료하는 속도를 재평가하고, 이러한 자동차들을 영국, 유럽연합, 미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 수출 및 판매할 수 있게끔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 세계 대기업들이 투자자, 글로벌 공급망 및 시민들로부터 탈탄소 압력을 받기 때문에 기업은 자신의 생존과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탄소 중립의 과제에 참여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SDGs 각분야의 선도 기업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20 LEAD 그룹"이 발족되었습니다. LEAD 그룹은 UNGC 10대 원칙을 자사의 전략과 정책 및 운영에 내재화한 다양한 산업군의 국내 회원사로 △국민연금공단 △KB국민은행 △(주)두산 △SK텔레콤 △LG화학△KT △포스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전KDN 등 총 10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협회는 이와 더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각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속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 기여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환경 부문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 부문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지배구조 부문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특별세션 '팬데믹과 ESG 투자 환경 변화 및 대응'에서는 잭 린(Jack Lin) MSCI 아시아 총괄 대표 및 상임이사,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 실장 직무대행, 원신보 블랙록 Investment Stewardship 본부장이 참여해 팬데믹 이후 국내외 ESG 투자 환경 동향 및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패널토론에는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김용현 한화자산운용사 대표이사, 양원준 포스코 기업시민실 전무가 참석해 자사의 ESG 대응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UNGC 한국협회가 블라인드와 협업을 통해 코스피 500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성평등, 인권, 반부패 인식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본 서베이는 기업 구성원인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기업의 성평등, 인권, 반부패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코로나19가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기업지속가능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황과 과제, 그리고 향후 정책 마련을 위한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7일 간 진행된 서베이에에는 주제별로 약 3,000명 이상의 응답자가 참여하여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수준과 재직 중인 기업의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각 이슈별 서베이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평등>

- 기업 고위직 내 성 다양성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서는 44%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17%가 ‘다소 그렇다’고 답함
- 성차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남녀 모두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36%)을 꼽았음. 이 밖에도 ‘조직문화’(18%), ‘경영진의 성 다양성 부족’(15%), ‘여성 경력단절’ (13%), ‘기타’(11%), ‘채용 및 인사 관행’(8%) 순으로 응답함
-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남녀 모두 ‘사내 분위기 및 문화’(42%)를 꼽음. 이외 항목은 ‘승진/평가/보상’(21%), ‘업무분배 및 부서배치’(18%), ‘기타’(9%), ‘채용’(6%), ‘의사 결정 반영’(2%), ‘교육/훈련/연수’(1%) 순으로 나타남

#### <인권>

-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인권 존중 수준은 매우 낮다(21%), 다소 낮다(31%)는 응답이 매우 높다(11%), 다소 높다(10%)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직장 내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직장 내 인권 침해 관련 징계 강화’(26%), ‘인권 침해 및 괴롭힘 관련 법제도 처벌 강화’(26%),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21%)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가장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항목에서는 폭언/욕설 등 인격모독성 발언(25%)이 가장 높았으며, 이 밖에도 타인 업무 강요 또는 기한이 촉박한 업무 부여(23%), 휴가 등 복지혜택을 쓰지 못하게 압력 행사 (1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적 업무 (8%), 외모 및 복장 모니터링 (5%), 기타 (5%),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1%) 순으로 응답함.

#### <반부패>

- 34%의 응답자가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 한편 내가 속한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응답도 ‘매우 낮다’는 응답이 전체의 34%를 차지함
- 응답자가 인식하는 국내 기업의 가장 심각한 기업 부패 행위는 불공정거래(33%), 회계부정(17%), 이익충돌(16%), 비자금조성(14%), 탈세(9%), 기타(8%)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회사에서 일어난 부패 행위에 대해 사내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61%)이 부패 행위를 알게 되어도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함. 이어서 47%의 응답자가 사내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해도 적절한 조사 및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함. 한편 62%의 응답자가 신고자가 ‘전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함



한편, 같은 날 본 서밋에는 국내외 기업 관계자 및 분야별 전문가가 한 데 모여 △여성 리더십 향상과 기업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이후 노동환경 변화와 기업 인권 △재생에너지와 기업의 미래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각 세션별 결과공유 바로가기

- [DAY 1 - 팬데믹과 ESG 투자 환경 변화 및 대응](#)
- [DAY 2 오전 - 여성 리더십 향상과 기업 지속가능성/코로나19 이후 노동환경 변화와 기업 인권](#)
- [DAY 2 오후 - 재생에너지와 기업의 미래/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특히 ‘재생에너지와 기업의 미래’ 세션에서는 베스마 알자부(Bessma Aljarbou) 애플 협력업체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 리더가 참여해 애플의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협력업체 대상을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최초로 RE100을 선언한 SK텔레콤의 사례 공유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RE100 이행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업의 해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서밋에 참여한 전 세계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은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의 포용적이고 회복탄력적인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업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함을 재확인시켰다”며, “본 서밋을 통해 공유된 귀중한 아이디어들이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기업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SDGs 소식

###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슬로워크



UNGC 가입: 2015. 12. 21

슬로워크는 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시너지를 통해 조직과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소셜벤처와 스타트업, 공공기관, 영리기업의 사회공헌 파트의 초기 셋업이나 액셀러레이팅에 필요한 디자인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이고 깔끔한 협업을 통해 웹사이트, 웹 아카이브, UI/UX, 데이터 시각화, 브랜드 전략 및 디자인, 캠페인 전략 및 디자인, 인쇄물 디자인, 교육 및 컨설팅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우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이슈, 펀딩, 채용 등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뉴스레터인 '오렌지레터'를 발행하며 다양한 조직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비대면 업무 가이드 및 화상회의 안내

슬로워크는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비대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가이드와 원격근무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및 디자인 프로젝트 수행으로 다년간 쌓아온 사례와 노하우를 블로그 글로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2 월 중 발 빠르게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한 화상회의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이메일마케팅 서비스 스티비를 활용해,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안내를 자동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또 슬로워크 홈페이지와 SNS 에도 공지했습니다. 프로젝트 업무의 특성상 외부 미팅이 잦아서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 원격근무 가이드 배포

슬로워크의 얼라이언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원격근무 가이드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원칙과 태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무환경 조성 등 꼭 필요한 정보를 가이드에 실었습니다. 나아가 협업 툴의 적절한 사용과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기반으로 고효율로 업무하는 방법을 블로그 글로 발행했습니다. 이후 가이드 배포 소식을 보도자료로도 제작해 긍정적인 임팩트를 확산했습니다. 디지털 및 디자인 프로젝트 노하우 공유의 경우,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블로그 글을 발행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변화를 업종별로 정리했고 비대면 캠페인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비즈니스 트렌드도 반영한 대응이었습니다.



슬로워크는 코로나 19 에 대응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표와 운영팀이 주도해 보건당국의 발표를 철저히 따르는 한편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원격근무와 화상회의를 장려했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 월 말 코로나 19 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할 때 슬로워크는 중국 여행에 다녀온 구성원, 호흡기 증상이 있는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공지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구성원도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을 따르도록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 화상회의 운영

슬로워크는 2 월부터 화상회의 앱 ‘구글 행아웃 미트(Google Hangout Meet)’를 활용해 회사 내외부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타운홀미팅’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타운홀미팅은 전 구성원이 참가해 회사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자 구성원 간 소통의 장입니다. 슬로워크는 이를 미루지 않고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충분한 휴가사용 독려 및 방역

코로나 19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는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리더와 논의하고, 리더들은 대상자가 충분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슬로워크는 휴가 일수에 제한이 없는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자녀 돌봄 휴가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도 철저히 방역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회의실을 폐쇄했고 회식을 금지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재택근무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4 월 1 일부터 4 월 30 일까지 ‘전 구성원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사업부 리더에게 사유와 시간을 보고했습니다. 사업부별로 출근 가능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 재택근무 중 구성원간 소통과 교류 장려

재택근무 중에도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구글 행아웃 미트를 활용해 사내 세미나와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랜선 슬로워크 세미나’를 통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고 ‘랜선 스트레칭’, ‘슬로워커가 보이는 라디오’로 매일 또는 매주 서로를 만났습니다.



슬로워크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전 구성원 재택근무’ 기간이 끝난 이후인 5 월 6 일부터는 자율 재택근무로 전환해 사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의 시작 전 충분히 환기하고 1 시간을 넘는 회의의 경우 1 시간마다 휴식하며 환기해야 합니다. 회의 참석자 사이의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합니다.

<슬로워크 생활방역 가이드>도 제작, 배포했습니다. 방역 관리자를 따로 두어 사무실에 손 소독제를 상시 비치 및 관리하고 사무실 곳곳에 방역 지침(안내 포스터)을 게시합니다. 또 매일 2 회 이상 환기하고 매일 1 회 이상 소독합니다.

슬로워크는 코로나 19 이전에도 원격근무와 자율 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정리해 외부에 공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로 인한 비즈니스 위축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으나 평소 준비한 덕분에 슬로워크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코로나 19 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외부환경 리스크를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으나 내부환경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슬로워크는 코로나 19 를 계기로 구성원의 보건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오프라인 활동을 계획하며 구성원들이 건강한 회사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2. [SDGs 솔루션] 소각 과정이 없는 폐기물의 에너지화



*O2E Recycling Technologies* 는 융통성 있는 재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폐기물 더미를 연료, 에너지, 비료, 식품 등 다양한 원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O2E Technologies 는 특허받은 냉각축매고도화공정, 고속 기화시스템, 유기 수직 재배시스템과 온실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혼합폐기물을 에너지, 연료, 식품으로 전환합니다. 본 프로세스는 우선 폐기물 개별의 모음을 활용하기 전 폐기물을 분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폐기물은 목재와 기타 생물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목재 폐기물은 잘게 다져져 기화프로세스의 연료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비료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인근 온실 시설로 보내져 식품 생산에 활용됩니다.

단일 혼합폐기물이든 우선적으로 분류된 폐기물이든, 본 공정의 결과물은 합성연료나 싱가스(합성 가스) 등 화학 파생물질, 전기와 열 에너지, 비료 및 퇴비, 그리고 청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왜 O2E Technologies 에 주목해야 할까요?

O2E Recycling Technologies 의 재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은 소각 과정의 필요 없이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어,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기업의 폐기물 전환처리 시설은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규모로 구현 가능해, 지역 사회의 에너지 및 식량 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 지속가능한 에너지

O2E Technologies 는 매립지에 묻히거나 소각 과정을 통해 온실 가스를 방출할 예정이었던 폐기물로부터 연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폐기물을 공급 원료로 탈바꿈함으로써, 상품 생산에 있어 새로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완화되고 에너지 및 식량 안보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UNGC 뉴스

## 1.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국내 ESG 선도 10대 기업 및 국회의원 선정



-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 한국협회는 24일 KT스퀘어 드림홀에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0(UNGC Korea Leaders Summit 2020)’을 열고, 국내 지속가능한발전목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10대 기업과 ESG 분야 혁신을 이끌어온 국회의원 6명에 대한 시상을 진행함
-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이자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항상 UN 사무총장 책임시절 가장 큰 성과로 지속가능목표설정(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과 파리기후협약을 꼽는다”면서 “오늘 LEAD 그룹으로 꼽힌 10개 기업은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기업이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고 말함
- 선정된 'UNGC 한국협회 2020 LEAD 그룹' 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UNGC 10대 원칙을 자사의 전략과 정책 및 운영에 내재화한 기업들로, △SK텔레콤 △포스코 △KB국민은행 △KT △LG화학 △(주)두산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전KDN 등 총 10개 기업임
- 또한 이번 서밋에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각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국회의원들에게도 감사패가 수여됨. 환경 부문에서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 부문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배구조 부문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됨

미디어 SR

## 2. 500대 기업 남성 직장인 절반 “직장 내 성차별? 없어요”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함께 지난 4~10일 블라인드 앱을 이용하는 코스피 500대 기업 임직원 34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25일 공개함. 조사 문항은 △기업 내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직장 내 성차별의 유형, 원인 및 개선방안 △기업 고위직 내 성 다양성 등에 관한 9개 질문으로 구성됨.
-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 극심한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고 문성욱 블라인드 대표는 설명함. 실제로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에 대해 여성은 82%가 “낮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51%가 “높다”고 답함.
- 여성 응답자 중 48%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유형의 성차별로 “승진/평가/보상 기회의 차별”을 꼽았음. “지금 다니는 회사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남성(57%) 중 21%가 “업무/부서 배치에서의 차별”을 꼽음. 이런 성차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남성(37%)과 여성(31%) 모두 “성별 고정관념”이라고 답함.
- 응답자들은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려면 “사내 분위기 및 문화”(42%)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함. 이어 “승진/평가/보상”(21%), “업무분배 및 부서배치”(18%), “채용”(6%), “의사 결정 반영”(2%), “교육/훈련/연수”(1%) 등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옴.

# UNGC 회원 뉴스

## 1. 수자원공사, 창립 53주년 '기후위기 경영' 선언



- 한국수자원공사, '기후위기 대응' '국민 중심의 물관리 혁신'을 다짐하는 창립 53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며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전력 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참여 계획을 발표
-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기후위기 경영'을 선언하며 “정부의 탄소 중립 발표와 연계해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공공기관 최초로 참여하겠다”고 밝힘. 이어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 같은 청정 물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조속히 RE100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와 함께 ‘세계 최고의 물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과감한 기술 혁신 등 새로운 미래 도전으로 치열한 물관리 플랫폼 경쟁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점할 것”이라며 “물 재해로부터의 국민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등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
-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극복을 위한 물값 감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물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함

국민일보



## 2. 교보생명 '2020 KWIN 컨퍼런스'...여성 인재 육성



- 교보생명, 다양성과 포용성(D&I-Diversity & Inclusion)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 리더십 담론의 장을 마련
- 교보생명이 주최하고 G20 엠파워 얼라이언스(Empower Alliance)가 함께하는 '2020 KWIN x G20 Empower 컨퍼런스'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웹세미나로 열림
- KWIN(Korea Women's Innovative Network) 컨퍼런스는 교보생명이 2012년부터 국내외 여성 인재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 및 리더십 역량 개발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며, 올해 9 회를 맞으며 대표적인 여성 인재 네트워킹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G20 엠파워 얼라이언스는 G20 리더 직속기구로 여성 경쟁력 강화와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 활동을 하는 조직
-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Next Normal & Leadership)'라는 주제로 열린 본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우수 글로벌 기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과 차세대 리더 800 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
- G20 세르파인 외교부 최경림 국제협력대사의 축사로 시작해 보잉코리아 에릭 존(Eric John) 대표와 한독상공회의소 바버라 졸만(Barbara Zollmann) 대표, 정샘물인스피레이션 정샘물 대표,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대표, 방송인 마크 테토(Mark Tetto), 어도비코리아 우미영 대표가 '다음 세대에 필요로 하는 리더십' 및 'D&I'를 주제로 연이어 강단에 올랐음

### 3. SK 이노베이션, 환경부와 친환경 신생기업 발굴...성장 집중 지원



- SK 이노베이션, 높은 기술, 성장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을 지닌 환경분야 사회적 기업 및 소셜벤처를 발굴해 집중 지원할 계획
- SK 이노베이션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환경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날 선정된 3개 업체에는 상패와 함께 4억원의 성장지원금이 주어짐
- ▲폐기되는 배터리 전지막 필름을 원단에 부착해 고부가 고기능성 원단을 생산하는 라이트루트  
▲막히지 않는 금속 필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고농도 폐수를 처리하는 에이런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한 번에 수거·세척하는 IoT 기능이 탑재된 분리배출기를 개발한 이노버스 등이 선정
- SK 이노베이션은 이들 3개 업체와 사업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빠르게 성장해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 법무, 마케팅, 홍보 등 다양한 영역의 자문을 지원할 계획
- 임수길 SK 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기업의 친환경 가치는 혁신적인 수준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ESG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업체에 SK 이노베이션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극 지원해 기업과 정부, 소셜 비즈니스 기업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성공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힘

뉴스스

#### 4. 국민銀, 내년 1 월 목표 '적도원칙' 가입 추진



- KB 국민은행, 내년 1 월을 목표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 2 월엔 가입 완료하겠다는 계획
- 적도원칙은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인프라 사업 등엔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세계 금융기관 간 자발적 협약이고 현재 110 여곳이 참여하고 있음. 주로 적도 인근 국가에서 이같은 대규모 사업이 이뤄지는 점에 착안해 협약명에 '적도'를 붙이게 됨
-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당사에 금융서비스를 요청한 인프라 사업 가운데 지역 갈등과 인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선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해서 취하라고 사업자에 요구
- 이같은 과정은 일반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데, 2017 년 국내 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적도원칙에 가입한 KDB 산업은행의 경우 ▲심사 대상 사업 선정 ▲사업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으로 분류 ▲등급에 맞는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심사 ▲(준수했을 시) 금융계약서 작성 ▲사후 관리 등의 절차를 밟아 적도원칙을 이행하고 있음
- 국민은행은 적도원칙 가입으로 적도 부근인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KB 금융그룹이 2025 년까지 그룹 순이익에서 글로벌 부문 비중을 약 10%(현재 약 2%)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

# 회원사 안내

## 1. 신규가입회원

11 월 16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입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 2. COP/COE 제출회원

11 월 16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4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충남연구원
- 노을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3. 2020 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 <1-4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미래에셋대우,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휴맥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화솔루션, 한국마사회,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SK 이노베이션, 롯데지주, 현대모비스, 태광실업,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삼덕통상

#### <1-4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인협회,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젤, 유엔한국협회, 이젤,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임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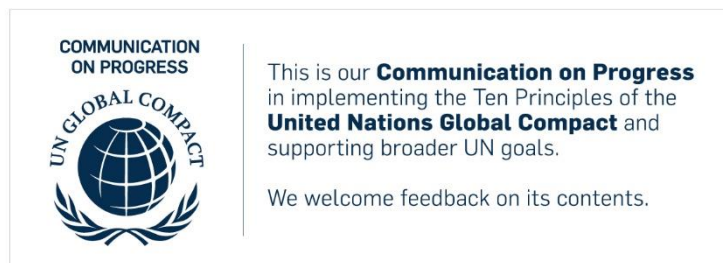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